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32호> 2019년 1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과장 토쿠노 미츠루(徳野 満)

지난 연말, 불꽃 축제인 벳푸 크리스마스 Hanabi 판타시아에 다녀왔습니다. 25회 째를 맞이해 벳푸의 대표적인 겨울 이벤트로 자리잡았으며, 스파 비치에는 외국인 관광객과 유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고베에서 불꽃축제 투어로 정박해있던 크루즈 객선의 승객도 바다 위라는 특등석에서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봄에 열리는 히타의 불꽃축제와 여름에 현내 각지에서 열리는 불꽃 축제도 볼 만하므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도 오이타의 불꽃 축제를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오이타현 관계자 여러분들께 신년 인사>



기획진흥부장
오카모토 테츠오(岡本天津男)

작년에는 세계 각국의 온천지 수장과 연구자 등이 한 곳에 모여 온천 활용을 통한 지역 발전, 가능성에 대해 의논하는 ‘세계 온천지 서밋’과 ‘오이타 오차카이’라는 이름으로 140만 명 이상의 분들이 예술 문화를 만끽한 국민문화제, 전국 장애인 예술문화제 등 주목도 높은 이벤트가 많이 개최된 1년이었습니다. 또 매년 열리는 벳푸 아르헤리치 음악제는 20회를 맞이한 기념으로 도쿄 공연 및 로마 공연이 성사되었으며, 오이타 트리니타가 2013년 시즌 이후 다시 J1 복귀를 이루어내는 등 기쁜 뉴스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드디어 럭비 월드컵이 개최됩니다. 전세계의 많은 분들이 오이타를 찾아주시고 박력 넘치는 시합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이타현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오이타를 방문해주는 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며 올해도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카츠시 소식>



What`s up, OITA! 한국어판 제32호(2018.11)부터 현내 각 시정촌의 소식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벳푸시에 이어 이번 호는 나카츠시로부터 온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코스모스 축제, 허수아비 월드 개최>



서일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산코 코스모스 축제’가 어느덧 12회를 맞이했습니다. 약 3,000만 송이의 코스모스를 보기 위해 각지에서 10만명이 넘는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야마구니 허수아비 월드’도 12회를 맞이했으며, 벼를 베고 난 후의 논 등 야마구니 마을 곳곳에 세워둔 허수아비를 보기 위해 약 4만 8천명의 관광객이 찾아주셨습니다.

<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일본 3대 갯벌 중 하나인 나카츠 갯벌에서 양식하는 나카츠의 브랜드 굴

‘히가타 비진(갯벌 미인)’은 탄력있는 식감과 단 맛이 특징으로 출하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나카츠시 종합정책과】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32호> 2019년 1월 발행

오이타 속 한국인을 만나다! 오이타 은행 국제 영업실 조용준



1.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이타 은행 국제 영업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용준이라고 합니다. 경상남도 김해 출신으로 오이타 대학을 졸업 후, 2013년부터 오이타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오이타 은행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외국인 직원 은 많이 계신가요?

전 세계에서 오이타 은행으로 오는 송금을 각 영업점에 보내는 업무를 하며, 주로 해외 은행과의 연락, 송금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이타 은행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행원은 저를 포함해 5명입니다. 지점에 1명, 본부에서 4명이 근무 중이며 저를 제외하고 모두 중국 출신입니다.

3. 오이타로 유학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렸을 때 일본 출장을 다니시던 아버지 덕분에 일본이란 나라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고 일본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 그동안 공부해온 일본어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에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오이타 대학은 한국과 가까우면서도 한국인이 많지 않은 곳을 찾다가 알게 되었고 제가 입학할 당시에 한국인은 저 한 명 뿐이었습니다.

4.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원래 대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같이 다니는 친구들의 취업 활동 모습을 보며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따라다니며 면접 대비 세미나도 듣고 학교와 친구들에게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이타 은행에서 외국인 행원을 뽑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을 했는데 운이 좋게 잘 풀린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학부에서 금융 시장을 전공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5. 일을 하며 보람을 느낀 적은 언제인가요?

한국 쪽과 거래를 시작하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는 상담을 받으면 제가 정보를 찾아서 드리는데,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주시면 저도 참 뿌듯합니다. 또 저희 은행과 거래하는 법인들을 서포트 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외국어 서포트 업무로 한국인 단체 손님을 받는 호텔을 찾아가 제가 간단한 한국어를 가르쳐드리고, 한국 손님들의 체재기간 동안 다양한 서포트를 해드렸고 나중에 호텔 사장님께서 덕분에 국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졌고, 도움을 많이 받아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6. 취미는 무엇인가요?

음악을 좋아해서 밴드에서 베이스 기타를 맡은 적도 있는데요. 한국에서 밴드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앨범을 만들 때 제가 도와주거나 곡을 써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합니다. 요즘엔 집에서 가능한 홈레코딩 장비를 갖춰서 쉬는 날에는 음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 오이타에서 추천하는 장소가 있으면 어디인가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오면 벳푸와 유후인을 자주 데려가지만 제가 추천하는 곳은 분고오노시입니다. 자연에 둘러싸여있어 조용하면서도 잘 찾아보면 숨겨진 맛집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분고오노시의 공민관에서 봉사활동으로 한국어를 가르쳐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수강생 분들께서 맛있는 가게들을 많이 데려가주셔서 추억도 많은 곳입니다.

8. 2018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 2019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제가 근무하는 국제 영업실은 국제 업무 그룹과 국제 솔루션 그룹으로 나뉘며, 처음엔 국제 솔루션 그룹에 속해있다가 현재 국제 업무 그룹으로 이동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은 2년차라서 사실 안주하며 지냈던 것 같아 조금 더 여러가지 기획을 해봤으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가끔 여러 지점의 은행에서 이런 서포트가 필요하다는 안건이 올라오는데 올해에는 그 안건을 제가 다 서포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